

[MOOC] 서울의 도시계획 경험과 세계 도시개발에의 함의: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2016. 1. 30.

강명구  
mkangcity@gmail.com

---

Week 1. 전지구적 급속한 도시화의 이해와 서울의 현대도시계획 태동  
Rapidly Urbanizing World and Overview on Seoul Urban Planning Experience

[Urban Planning Module 2]

To solve the issues facing urbanization we need metropolitan urban planning and governance.  
오늘날의 도시화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권 차원의 계획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UN forecast states that we will see more megacities in the future.  
유엔이 예측한 바에 의하면 미래에는 더 많은 대도시들이 생길 것 입니다.

This shows megacities of the world which have over 10 million in population.  
이것은 천만인구가 넘는 세계의 대도시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e will have more megacities  
미래에는 더 많은 대도시권들이 생기고

and most importantly most megacities will happen in the developing world  
그 대도시권들이 개발도상국들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including Indian cities and Chinese cities.  
인도나 중국의 도시들에서 말이죠.

These are today's metropolitan areas with population of over 10 million.  
오늘날 대도시들은 천만이 넘는 시민을 수용합니다.

As you can see New York has over 20 million.  
뉴욕은 2 천만이 넘죠.

LA, London, Paris and Tokyo are also big urban areas with population of over 20 million.  
LA, 런던, 파리, 도쿄도 2 천만 인구가 넘는 큰 도시권입니다.

The urban areas have been expanding over the course of history regardless of administrative boundary.

도시권은 행정상 경계를 넘어 계속 팽창해왔습니다.

So in the old days, the cities' size were about 4 or 5 kilometers radius

과거에는 반경이 4~5km 정도 였습니다.

because that time the majority of the people moved by walking.

이유는 주된 이동수단이 도보였기 때문입니다.

But as transportation developed and we began to have cars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the city expanded further up to 20 or 25 kilometers.

도시가 20-25 km 까지 확장되었습니다.

And with the highway system, cities began to expand even farther up to 30 or 40 kilometers.

고속도로 시스템으로 도시들은 30-40 km 까지도 확장했죠.

But the issue here is that this urban expansion happened beyond the administration boundaries.

여기에서 문제는 사람들의 삶과 일을 영위하는 도시권역의 크기가 개별 도시의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This is the example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of administrative cities with over 1 million population.

이 표는 미국과 한국에 있는 행정구역 기준으로 인구 1 백만 이상을 가진 도시들을 보여줍니다.

The US only has 9 cities with over 1 million population, which are New York and Los Angeles.

미국에 행정구역기준으로 인구 1 백만이 넘는 도시는 뉴욕과 LA 등 9 개 뿐입니다.

New York only has 8 million population, but as you have seen in the previous slide the New York metropolitan area has over 20 million people.

뉴욕의 인구는 8 백만입니다만,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았듯이 뉴욕 도시권역의

인구는 2 천만이 넘습니다.

So one urban economic area is far bigger than the administrative city.

오늘날 하나의 도시경제권역은 도시의 행정구역보다 커졌습니다.

So that's why the administrative boundary of the cities no longer reflects the physical, social, economic, cultural or environmental reality of urban development

도시의 행정 경계가 더 이상, 도시계획 및 발전을 논하는데 있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and that's why we need new forms of metropolitan governance.

그것이 도시권 계획과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And the UN statistics show that we will see even bigger urban areas with more than 1 million, 5 million and even 10 million people.

UN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 백만 이상의 대도시 권역이 더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That's why we need metropolitan planning and metropolitan governance.

이것이 대도시 권역차원의 도시계획과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So urbanization requires metropolitan governance in many areas

오늘날의 도시화는 대도시 권역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and also requires good management of land as a key resource,

또한, 주요한 자원인 토지에 대한 우수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which is also the base to provide public services efficiently.

토지관리는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초가 됩니다.

Good urban planning is critic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cities, states and the world.

좋은 도시 계획은 도시와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